

나의 讀書遍歷

朴時仁

나는 책 속에서 몸과 마음의 양식을 찾아먹고 지금까지 살아 오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응석을 부리며 음식을 편식한 버릇으로 책도 편식하였다. 즉 어떤 分野의 책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책의 세계에서 편력을 하였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많은 책을 사랑하고 잘 아는 독자들에게 내가 이 글을 보낸다는 것은 마치 성한 사람에게 장님·절umbo이 길을 말해주는 격이다. 그래서 사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쓰게 되어 「펜」을 잡으니 휴전선 넘어 고향에 살던 머나먼 어린 날을 마음으로 다시 살게되어 정말 기쁘다.

나는 걷기를 배워 마을 길을 달리게 되자 할아버지에게 이끌려서 책의 세계로 들어 섰다. 그 세계에서 내 첫 걸음책은 「千字文」이었다. 하늘 天, 땅 地, 검을 玄, 누를 黃에서 어찌乎, 이끼也까지 비교적 일찍 다 배웠다. 그러나 푸른 하늘을 왜 겉이라고 하는지, 다채로운 땅을 왜 누르다고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의문이었으나, 물어볼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 자주 불려 나가서 큰 소리로 읽고 많은 칭송을 들었다. 마치 오늘날 대여섯 살되는 어린이가 손님들 앞에서 「피아노」「소나타」를 야무지게 치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과 같은 광경이었다.

하늘이 겉고 땅이 누르다는 것은 우리 동양의 진통적 天文地理의 근본 이념이라고 설명해 주셨더라도 알아듣지 못할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 할아버지는 이제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유능한 내 家庭教師였다.

다음의 교재는 「계몽편」이었다. 이 책의 이름은 둥매한 어린이에게 天地와 人生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주어 눈이 띠게 하는 책이라는 뜻이다. 이 책을 펴놓고 「天地之間에 有人焉하고, 有萬物焉하니…」라고 큰

소리로 읽고 또 읽노라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것이 천연색 영화의 장면처럼 생생하게 어린 마음에 떠올랐다. 그 모든 것, 만물 중에서 사람의 아이인 내가 주인으로 자라난다는 말이 나는 신나게 좋았다. 성장하여서 읽은 어떤 시보다도 더 큰 궁지와 감명을 내게 주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피아노」 개인지도나 태권도장에 가서 예능·체능을 배우듯이 내연배의 사람들의 이런 책으로 天地간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형제·동포·조국을 사랑하며, 그 주인으로 성장하기를 배웠다. 이런 교육은 마치 이론불에 뿌린 씨와 같아서 곧 새싹이 돌아나거나 꽃을 피우지는 않았으나, 인생의 가을에는 반드시 많은 추수를 가져왔다.

나도 역시 지금 와서는 그 보람이 컼다고 본다.

여덟살이 되자, 나는 학교에 보내져서 신식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며 지금까지 학교에서 살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초의 생활시간에 개구리를 해부한때부터 나는 科學에 흥미를 뒣았다. 자연에 대한 소년다운 흥미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지만 산개구리를 다리를 붙잡아 품짝 못하게 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볼 때의 역겨운 생각이 오래도록 남아서 나를 의사로 만드시려던 아버지의 꿈은 영영 깨뜨려졌다. 그리하여 나는 語文系科目에만 흥미를 가진 반신불수가 되었다. 체육시간에 「골·키퍼」를 맡고 「골포스트」에 등을 대고 서서 영어단어장을 의우다가 어느틈에 날아온 공을 막아내지 못한 일도 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중학 동창회에 가면 놀림을 받는다.

중학교 2학년때 담임인 미술선생님이 「아라비안나이트」를 황홀하게 이야기해주신 것에 매혹되어, 일본어로 된 소설과 세계문학전집을 골라 가며 읽었다. 그러나 그 때에 읽은 문학작품들은 지금은 이름조차 잘 생각나지 않고 「리빙스톤의 아프리카탐험기」를 읽으며 미지의 대륙에 대한 호기심에 불타오르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3학년때 담임인 영어선생님은 방과후에 「論語」를 강의해 주셔서 아직도 그때에 일본어로 읽은 몇 귀절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다른 한문책으로는 「十八史略」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 책에 담긴 짧막한 이야기 중 많은 것은 장편소설에 해당되는 深長한 감화력이 있었다.

그러나 진학시험준비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독서는 중단되었다. 중학

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어떤 고등학교에 응시하였다가 책을 편식한 별로 낙방하였다. 선배들은 한국인을 받아준 선례가 없는 학교에 응시한 것이 어리석었다고 꾸짖었다. 나는 그런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다음 해에는 바로 입학시험 때에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그다음 해에는 우리 민족의 대학에 다니고 싶어서 서울로 와서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中日戰爭이 한창때였는데 조선어 학회 사건과 독립운동에 관련하여 옥고를 치른 교수들에 관한 이야기며 외국에서 활동중인 애국지사들의 이야기며 두루 엎어듣고 나도 志士가 된 기분으로 다녔다. 일부러 짚신을 사서 신고 북아현동 하숙집에서 신촌의 학교까지 고갯길을 넘어 다녔다. 그러나 그 학교에는 내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매주 수요일 조회시간에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감리교식 예배를 보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학교답지 않고, 외국신학교 시늉같아서 싫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려고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하겠다는 민족의 일꾼이 되려고 三千里江山에서 모여 왔다고 말해 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 학교에 들어온 덕분에 밀음과 찬송으로 뚉쳐진 일야 큰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單一民族이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民謡를 찬송가로 높여야 한다고 깨달았다. 또 그리고 「성경」을 좋아하게 되어 영어와 「프랑스」어 성경을 읽으면서 語學공부를 하여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때 비롯으로 지금도 나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흔히 「프랑스」어로 익운다.

영문학에서는 수필과 낭만파 시를 좋아하였고,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시저」「베니스의 상인」을 원문으로 읽었다. 그 때의 내 나이로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척 읽고 싶어서 여러번 시도하였다. 그러나 순정의 사랑극에 상발이 자주 나와서 팽개쳤다.

사회과학분야에 있어서는 法律은 우리 동포를 옳아들이는 수단이라고 싫어하였고, 경제학은 좋아서 일본어와 영어로된 경제학 책을 많이 사서 그 중의 일부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영어로 쓴 책들이 術語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탐독하였다.

「애덤·스미드」가 「국부론」에서 분업을 논하는 대목에서 바늘하나 만드는 일을 18명의 사람이 나누어 하는 모습을 설명한 것을 읽고서는 우리도 산업혁명을 해야한다고 다급하게 느꼈다. 우리사회에는 協同組合運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 「샤를르·지드」의 「소비조합론」을

탐독하였다.

휴가때에 고향에 내려가서는 내 조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이니 과거에 서당선생을 하신 일이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孟子」를 배웠다. 신식대학생이 옛날 글을 배우러 왔다고 기쁘하시면서 그것을 꺼내 쓰시고 단정히 앉아 集註까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다.

孟子가 王을 찾아 가셔서 政治는 利를 탐내지 말고 仁을 배풀어야 된다고 도도하게 논하는 대목은 「베니스의 상인」중의 「포샤」의 응변이나 「줄리어스·시저」의 「안토니」의 응변의 유가 아니었다.

그후 고향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중에 소련군이 진주하여 그 주둔하에서 가산은 빼앗기고 나는 지주 외아들이라고 감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책을 모두 상자에 넣어 처가집에 싣고가서 곳간 바닥에 묻어두고 38선을 넘어 46년 4월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秋夕까지는 돌아온다고 인사하고 부모를 작별한지 어느덧 32년이 지났다.

서울에 도착하자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단은 「펜」뿐이었다. 영어공부책을 써서 약간의 수입을 얻었고 서울신문사에서 내는 잡지 「신천지」에 「지도」의 「소비조합론」의 원본에서 일부를 번역해 실고 반응이 있기를 기다려 보았다. 그러나 원고료로 쌀 한 가마니를 사 먹은 것으로 끝나고 그뿐이었다. 지금도 나는 협동조합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계획경제체제의 운영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이다. 이것은 아마 내가 경제학을 좋아하던 학생시절에 일본군정이 심한 통제경제를 한 것을 증오하면서 베른의 잔재인지도 모르겠다.

그해 9월에 사법대학부속중학교 영어교사로 채용되어 다시 조금씩 책을 사모으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어 교사가 없어서, 그 시간도 말아 가르치면서, 「로망·로랑」의 「당뚱」「7월 14일」등의 국과 「빅토르·위고」의 시집 「콩탕프라옹」등을 탐독하였다. 광복을 맞이한 자유남한에는 신생의 기운이 넘쳐서 낭만주의적으로 나가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태는 무질서하고 학원은 소란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에 대학원이 설치되어 나는 사법대학 부속중학교 교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대학원 영문과에 들어갔다.

저명한 교수들 밑에서 「예스퍼센」의 「영문법」, 영국 낭만파와 二十世紀 시 등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교사직과 私生活에 쫓겨서 마음껏 工夫를 하지 못하고 勵亂中에 부산에서 大學院을 나오고

이 대학 교단에 서서 오늘에 이르렀다.

대학에 재직하면서부터 내가 읽는 책은 나의 일에 관한 것으로 거의 한정되었다. 나와 같은 영문파교수로서 부과되는 연구논문을 자주 내는 이들을 우러러보면서, 나도 연구에 참고될 도서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休戰 이후 우리문학계가 아직 재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외국문학번역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내게도 많은 번역주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오 헨리」의 단편집 「마지막 일새」(李好成과 共譯)를 시초로 「스티븐·크레인」의 「주홍훈장」, 「마담·드·노아유」의 「사랑의 日記」(原名 Le visage émerveillé),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그레厄·그린」의 「사랑의 終末」, 「제임즈·조이스」의 「데브린 사람들」 「젊은 藝術家의 초상」, 「플루타크」의 「영웅전」(全六卷), 「칼라일」의 「과거와 현재」 「영웅 송배론」 「의상철학」 등을 번역하였다.

스스로 평가하건대 나는 아름답고 유창하게 번역하지는 못하였으나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하며 원본에 가까운 역본을 썼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번역은 그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플루타크」의 「영웅전」을 번역하는 동안에 그 책에서 만난 수백명의 「그리스」「로마」의 역사적 인물을 잘 알게 되었고, 사람의 생애에는 운명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것과 그런 계기를 잘 利用하여 보람찬 일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느끼게 되었다.

「의상철학」에서 「카라일」은 말하기를—

「시간이 길다는 것 혹은 짧다는 것은 상대적이다. 생각할 나름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一生 60年을 60分 1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큰 일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10年功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만이다 두어 시간쯤 기다리는 셈 치고, 두어 백년 지내면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대목을 읽고 나도 그래보고 싶었다.

一日千秋라는 말이 있는가하면, 10年 1日이라는 말도 있으니, 10年 1日 내가 할 가치있는 일을 찾아 내었다.

이때에 내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읽던 책은 梁桂東선생의 「古歌研究」였는데, 「유쾌한 응접실」이라는 「라디오」 방송 공개녹음에 함께 나갔다가 끝난 후에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나누면서 梁박사에게 여쭈었다.

「선생님의 고가연구는 과연 국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거기서 중단

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梁박사는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는 표정으로 나를 주시하시기에 나는 말을 계속 하였다.

「그 책을 쓰신 후에 선생님은 몽고어, 만주어, 한국어, 일본어등 「알타이」어의 여러 地方語를 비교 연구하시고, 우리말의 균원을 밝히고 싶으셨을 터인데, 거기서 중단하신 것이 이상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국어사전은 아직까지도 어원이 밝혀 있지 않은 사전이 돼 있습니다. 「알타이」어의 여러 地方語를 비교 연구하는 대신에 한반도 남해안의 이 고을 저 고을의 사투리를 비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자 梁박사는 快心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옳소. 고가연구를 쓴 다음에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었소. 내가 평양 송설 전문에 가 있을 때 일본인 아무개가 「향가연구」라는 큰 책을 우리 보다 앞질려 낸 것이 나는 분해서 3年 동안 침식을 잊어버리고 고가연구를 쓰고 나니 내가 다 죽게되었소. X「레이」사진을 찍어보니 허파에 구멍이 크게 나있었소.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일은 하지 않았소.』 이 대답을 듣고 나는 將軍을 만난 졸병처럼 거수경례를 하였다.

『알았습니다. 국보선생님이 오래사셔야 합니다.』

天涯선생은 呵呵大笑하시면서 눈시울이 뜨겁도록 우러러 보는 나를 건너다 보셨다.

나는 내가 시작한 일과 끝까지 힘을 겨루어 보기로 새삼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써낸 책이 「알타이 人文研究」「알타이文化史研究 한국편」「日本神話」등이고, 「알타이신화연구」라는 새책도 얼마전에 출판되었다.

이런 책들을 쓰는 동안에 내가 읽거나 사용한 책으로서는 「詩經」「易經」「老子」「莊子」「列子」「淮南子」「史記」를 비롯한 「二十四史」「몽골秘史」「만주실록」「조선태조실록」「日本紀」「萬葉集」, 「스트라·보」의 「地理」, 「헤로드루스」의 「史」, 「프레아저」의 「金枝」 등은 기본자료고, 「다이어먼드」의 「언어의 기원」, 「토인비」의 「역사연구」, 徐亮之의 「中國史前史話」등은 주요한 참고도서였다. 16세기 영국 사람 「프랜시스·베이콘」은 말하였다.

『어떤 책은 부분적으로 읽고, 어떤 책은 대충 읽고, 어떤 소수의 책은 주의 깊게 세심하게 읽어야 한다.』

옳은 말이다. 앞에 열거한 책들 중에서 「史記」등 「二十四史」는 전부를 세밀히 독파할 필요가 없고, 다만 관심있는 부분 부분만 자세히 읽

으면 그만이다.

예컨대 「史記」 중에서 제115권 조선열전은 동양사나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이는 반드시 읽어야하는 부분이다. 그 분량은 단 한장뿐이니, 부담될 것은 없다.

그 글은 서기전 109~108年에 漢나라와 조선이 전쟁할 그 당시에 漢나라 武帝의 史官이 기록한 실록이며, 그 전쟁에 관해서는 원인 경과 결말까지 다 기록한 가장 근본적인史料다. 그 글을 보면 한나라 武帝는 그 전쟁에 내보낸 자기의 將軍들을 모두 극형에 처하고, 시체를 거리에 내걸기 까지도 하였다. 그 죄목은 조선과의 전쟁에 패전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민대중은 그 전쟁에 진 것은 한나라가 아니다 우리 측이라고 반대로 알고 있다. 이것은 읽어야 할 책 한장을 읽지 않거나 자세히 읽지 않고 바보같은 소리를 하는 代表의 예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든다. 고구려 발해 이후에 그땅 만주에 살아있던 우리 겨레가 어찌 되었느냐라는 의문은 우리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다. 「金史」, 즉 만주 여진이 세운 金나라 역사책 맨 첫장에,

『金나라 시조 함보는 처음에 고구려에서 오셨다. …여진과 발해는 본시 同一家다「金之始祖函普 初從高麗來…女眞渤海本同一家)』라고 기록돼 있다.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 동족이고, 발해와 여진도 동족이니, 만주에서의 우리겨레 역사는 부여·고구려·발해·여진의 金나라·清나라로 二十世紀初까지 연연히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줄 책을 펴보지도 않아서 모르게 된 代表의 예일 것이다.

독서의 功은 이와같이 크고 독서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 잘못은 이와 같이 심하다. 「프랑스」의 옛말에 게으른 자식들을 가진 어떤 농부가 임종할 때에 자식들을 불러 앉히고 포도밭에 많은 金銀을 묻어 놓았으니 찾아가지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망한 후에 아들들이 열심히 땅을 파서 큰 수확을 얻었다라는 옛말이 있다. 그러나 책 속에는 金銀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얼마든지 들어 있다.

그러므로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다들 말한다. 양식을 먹으면 힘이 생긴다. 좋은 마음이 양식을 먹으면 좋은 일을 더하게 되고, 나쁜 마음이 양식을 먹으면 나쁜 일을 더하게 된다. 이 사실을 「성경」에 말하

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옛날부터 우리 겨레는 어린이들에게 「계동편」「동동선습」「명심보감」 등을 가르쳐서 부모·형제·동료·나라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좋은 사람이 되게하고, 그런 연후에 비로소 체능·예능·지능을 가르쳐 왔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순서로 교육하고 있으니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결과가 적이 염려된다.

千年以上의 年輪을 가진 우람한 전통적 교육을 받다가 일찍 중단하고 신식 교육을 받고 자라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약간의 지능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밀친으로 삼고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내 정신에 깊이 밴 못된 생각과 성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자주 읽는 책이 있다. 그것은 「명심보감」과 「헤르만·헤세」의 「신달타」「시인」 등 소설과 「타콜」의 「시집」 등이다.

이런 책을 읽고 마음이 맑아지면 李太白이나 「그레이」의 시를 하나 둘 읽고, 생각에 잠겨본다. 그러다가 마당에 나가 나무 옆에 서 있기도 하고 또는 하던 일에 다시 달라 붙는다. 하던 일이란 다름아니라 책을 쓰는 일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알타이語文法研究」는 아직도 미완성이 있고, 그밖에 더 시급히 끌낼 책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 독서 편력은 내가 쓰는 책의 원고와 교정지를 읽는데서 멀리 나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다른 이들의 책의 세계를 내가 편력한다면, 그것은 책들이 原始林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도서관 서가 사이를 계속 들락날락하는 程度 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신나는 活動이다.